

영화 ‘인디애나 존스’의 감독인 조지 루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능은 누구에게나 있다. 문제는 어떤 재능인지 알아낼 때까지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어릴 때 재능을 발견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실패와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언제 발견될까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일하게 될 때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섬길 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가 왜 지난날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꿈을 꾸었고 어쩌다 형들이 그를 장사꾼에게 팔아 애굽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축복을 받는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1. 하나님이 함께한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창39:2).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인 라헬에게서 늦둥이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요셉은 형제들의 곡식 단이 자신의 곡식 단에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형들에게 말해 결국 형들의 분노를 샀고, 요셉을 죽이기로 작당해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렸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여기까지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셉이 꾸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지만 요셉 자신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므로”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깨닫게 됩니까? 평안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련과 역경 속에서, 홀로 싸워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요셉도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형통의 축복이 임합니다.

2. 범사에 형통한 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창39:3).

‘형통하다’는 말은 원어로 ‘살라’ 영어로 ‘advance, successful(성공하다, 번성하게 하다)’입니다. 요셉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잘 되게 했던 사람, 번성하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형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셨더니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단순히 번영하거나 한 번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손을 내밀어 하는 일마다, 그가 맡은 일마다 잘 되는 것이 바로 형통의 축복입니다. 지금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의 노예입니다. 그 집에 수많은 노예가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의 제반사항을 모두 처리하는 총괄자가 되었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결국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궁궐로 들어가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내가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자리에 형통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3. 축복의 통로가 된 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와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지라”(창39:5).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 누가 그와 함께 갔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덩달아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디발의 가정까지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섬김으로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속한 곳이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모시고 형통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형통한 자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의 자리,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성도는 반드시 형통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형통한 자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는 형통한 축복이 나타나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의 섬김과 헌신이 형통의 은혜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놀라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3)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3/18(월)	3/19(화)	3/20(수)	3/21(목)	3/22(금)	3/23(토)	3/24(주일)
수 11-13	수 14-17	수 18-20	수 21-22	수 23-24 삿 1	삿 2-4	삿 5-6

QT

이번 주 QT 말씀

3/18(월)	3/19(화)	3/20(수)	3/21(목)	3/22(금)	3/23(토)	3/24(주일)
시 55:16-23	시 56:1-13	시 57:1-11	시 58:1-11	시 59:1-17	시 60:1-12	시 61:1-8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한적이 있습니까? 함께 나눠주세요.
3.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일이 있으면 나눠주세요.